

# '태권도사' 태권도 매력 선물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상설공연 진행... 주인공들 올바른 성장 다룬 스토리형 공연

매년 새로운 내용과 음악, 무대 장치 등을 선보이며 수많은 관객들에게 태권도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태권도원 상설공연'이 올해는 '태권도사'로 찾아왔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024년 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도사'를 공개하며, 스토리 있는 전개로 태권도원 방문객들에게 태권도 매력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방지축 주인공들이 태권도사를 만나면서 수련을 통해 정의로운 태권도인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으로 고난도 격파와 창작 품새, 호신술 등 태권도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전달한다.

태권도원이 지리한 백운산 자락을 표현하는 구조물과 신비로운 태권도사를 나타내는 안개 등 다양한 효과와 음향으로 극적 몰입감을 더하고 특히, 올해 상설공연에서는 관객들과의 활발한 호흡을 위해 객석으로 다가가는 등 더욱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태권도원 상설공연 일정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11시와 14시 등 매일 2회 공연(태권도원



매년 새로운 내용과 음악, 무대 장치 등을 선보이며 수많은 관객들에게 태권도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태권도원 상설공연'이 올해는 '태권도사'로 찾아왔다.

휴원일 제외)을 하고 2월·3월 및 11월·12월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1일 2회, 주중은 일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상설공연이야말로 태권도 매력을 담은 케이(K)-컬처의 정수로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는 태권도원의 자랑이다"며 "태권

도원은 태권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표 관광지이자 세계 태권도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원 상설공연의 자세한 일정은 태권도원 누리집이나 태권도원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설맞이 제28회 작은문화축전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2024 설맞이 제28회 작은문화축전을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10일 설날 당일은 휴관)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세시풍속에 대한 이해와 전통놀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물관 옥외뜨락에는 상설체험마당이 설치되어 활쏘기,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와 사물놀이



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팻돌과 절구, 도랑형

기구를 직접 만져보고 계량해 볼 수 있는 옛 생활도구 체험마당과 올 한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새해 소원 부처 찌기도 운영된다. 또한 '전래놀이 스탬프 투어'는 놀이마당 오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전래놀이에 참여 후 스탬프를 모으는 행사로, 모두 모은 참여자에게는 문구세트가 제공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 꼭 박물관에 오셔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청룡의 힘과 용기로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놀라운 성과를 내는 특별한 한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비밀의 언덕' 국회서 상영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오는 15일 오후 7시 개최되는 2월 국회문화극장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인 '비밀의 언덕' (2022)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국회사무처와 지난해 12월 22일 문화적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업무협약에 의한 첫 번째 상영 프로그램 '2월 국회문화극장'에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부문 상영작이자, CGV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 수상작인 이지은 감독의 영화 '비밀의 언덕'을 상영한다.

'비밀의 언덕'은 초등학교 5학년 소녀 '명은'

(문승아 분)이 교내 글짓기 대회를 통해 그간 숨기고 싶었던 비밀에 대해 토로하는 성장 이야기를 따듯한 시선으로 담아내 세간의 호평을 받았다. 국회문화극장은 이날 영화 상영에 앞서 이지은 감독과 문승아 배우가 참석하는 무비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 관객 대상의 이벤트도 준비돼 기대를 모은다.

2월 국회문화극장 예매는 온라인으로 시행되며 1일 '대한민국국회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회문화극장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하며 이목을 끄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국회문화극장 | 2024. 2. 15. (목) 19:00 | 국회의회관 2층 대회의실

15:00-18:00 | 18:00-19:00

비밀의 언덕 | 박경도 감독 | 문승아, 이지은 출연

초청 무비토크 | N행시 이벤트 | 신년 맞이 문화향유 프로그램

예매: 2월 15일 19:00

문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3828-9

##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 교육 완료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 전통한지 명맥 유지 위해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통문화 거점도시인 전주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전주 한지장 후계자 양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이하 전당)는 신협중앙회와 함께 전주 전통한지 복원과 생산, 명맥 유지와 기술 계승을 목적으로 202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양성 교육을 진행하여 전주한지장 후계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주시와 신협중앙회가 지난 2021년 4월 체결한 '전주시 전통한지 계승·발전과 세계적 한지산업도시 기반 조성 업무 협약'을 통해 일궈낸 결과이다.

교육은 후계자로서 전문적 자질을 갖추기 있도록 전주한지장 4인과의 도제식 교육 방식을 도입했으며 현장실습 및 이론교육, 한지 원료 처리와 제조 실습 등의 과정으로 구성,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다.

특히 전당은 교육생 선발을 위해 전통한지뜨기 시연, 개인프레젠테이션 발표, 인터뷰, 오디



션 등 단계별 심사를 약 2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등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집부터 만전을 기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교육은 전주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전주한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후계자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당과 신협은 전주한지장 후계자에게 △한지 관련 공공기관 및 생산업체 취업 추천 △전주한지협회동조합 기술관리직 임용 추천 △한지 공방 창업지원 등 특전 제공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근대문화 숨쉬는 '군산 시간여행마을'

한국관광공사 추천 '2월 가볼만한 곳' 선정

군산 시간여행마을이 지난달 25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2024년 2월에 가볼만한 곳'에 선정되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매일 테마별로 '주말 나들이' 관광명소를 소개하는데 군산 시간여행마을이 '우리 동네 레트로'라는 옛 감성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테마에 맞는 장소로 추천되었다.

시간여행마을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과 이에 항거한 군산만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근대로의 특별한 시간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레트로 여행지로 인정받은 것이다.

추천코스로 옛 군산 모습과 근대 군산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은행), 해방골, 신흥중 일본식 기옥, 동국사 등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재와 함께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장소인 초원사진관까지 둘러볼 것을 권한다. 특히, 말뚝마을은 1930년 무렵부터 산비탈을 따라 만들어진 독특한 주거지로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70~80년대 오래된 빈집들이 있는 옛스런



공간을 젊은이들이 모여 미술관, 책방, 공방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레트로 여행지로 눈길을 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근대문화가 숨쉬는 시간여행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억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월에 가볼만한 곳'은 2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소개돼 더 많은 관광객이 시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일도심 근대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한 '군산 시간여행'은 2015년, 2017년, 2019년 3회에 걸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김필곤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안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